

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 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나라</i>			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	배포 일시	2022. 7. 19.(화) 14:00 (협약체결 후 사진 포함하여 배포)
담당 부서 <총괄>	해양정책관 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인경 (044-200-6220)
		담당자	사무관 안장현 (044-200-6221)

첨단 해양과학기술로 우리바다를 지켜나간다.
- 해수부·해군·해경·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 연구 협력 MOU 체결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우리 해양영토 수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7월 19일(화) 해군본부,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과 해양영토 분야 연구개발(R&D)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해수부는 지난 2019년 해군, 해경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양사고 대응, 해양환경 정화 활동 등의 분야에서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왔다.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협의회에서 R&D 분야 실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R&D 관리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도 함께 참여했다.

이번 ‘해양과학기술·해양영토 분야의 R&D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’은 4개 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공동기획, 대형 프로젝트 발굴, 연구개발 성과 실증 및 현장 적용, 상호 공동활용을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 또한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및 공동행사 개최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.

협약 체결을 통해 최근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항만, 자율운항선박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군항과 함정에 적용하고, 해양무인체계, 해상작전용 드론 등 새로운 장비들을 실증하여 현장에 조기 투입하는 한편, 해양·국방·인공지능(AI)·빅데이터 등이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해양영토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의 틀이 마련된 만큼, 4개 기관 간

긴밀히 협력하여 초격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해양·조선·국방 등 연관 산업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과학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인경 (044-200-6220)
		담당자	사무관 안장현 (044-200-6221)
담당 부서	해군본부	책임자	과 장 문경수 (042-553-5130)
		담당자	담 당 김지홍 (042-553-5131)
담당 부서	해양경찰청	책임자	단 장 송민웅 (032-835-2008)
		담당자	계 장 이우수 (032-835-2108)
담당 부서	해양수산물과학기술진흥원	책임자	실 장 이성미 (02-3460-4071)
		담당자	연구원 최선미 (02-3460-4072)

참고 1 협약식 사진



참고 2 해양과학기술·해양영토 분야 R&D 협약식 추진계획

□ 업무협약 개요

- 일시/장소 : '22.7.19.(화) 11:00 / 서울 중구
- 참석자 : 해양정책관 홍종욱, 해군 소장 임중재, 해경 치안감 김용진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오운열 등 각 기관 15여명

시간		내용	비고
11:00~11:10	10분	개회 및 참석자 소개, 인사말씀	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
11:10~11:20	10분	협약 내용 보고	
11:20~11:30	10분	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	참석기관 전체
11:30~13:00	90분	오찬	

□ 주요 협력사항

① 대형 사업 공동 기획(가칭 SONAR Project : Smart Ocean-Navy R&D Project)

- (스마트 군항·해양무인플랫폼) 우리 부에서 개발중인 스마트 항만, 자율운항 선박, 수중로봇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군항, 해양무인플랫폼 기술개발
- (AI·데이터융합) 우리 부 해양정보 데이터 AI 융합 및 공동 활용가능한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해양 및 정보 시스템 등과 연계·고도화

② 연구성과 실증 및 도전적 R&D 추진

- (테스트베드) 우리부와 해군·해경의 해양무인플랫폼 및 R&D 성과물 성능을 실증할 수 있는 공동 실험역 해상·수중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
- (도전적 R&D) 친환경 추진기, AI·로봇, 음파흡수 소재, 무공기통 호흡장비 등 기술 난이도가 높은 수요를 공동 발굴하여 기술개발 추진